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세곡동성당 | 2017년 2월 설립

입당송 | 시편 27(26), 8.9 참조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1독서 | 창세 12,1-4ㄱ

화답송 | 시편 33(32), 4-5, 18-19, 20과 22(© 22 참조)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2독서 | 2티모 1,8L-10

복음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마태 17,1-9

영성체송 | 마태 17,5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 양천성당 주임 겸 제18양천지구장

| 위안을 주는 기도 생활

혹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행기를 타고 드넓은 초원과 구름 위를 나는 두 주인공이 마주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그 배경에 들리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제2악장의 아름다운 선율!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음악 작품은 오늘도 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항상 떠오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음악을 들으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오르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복잡한 속세를 떠나 잠시 고요와 평화를 찾아 산을 찾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그 평화로운 장면 말이죠.

예수님은 산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특히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셨습니다(예컨대, 마태 14,23; 24,3 등 참조). 보통은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셨지만, 오늘은 제자들과 함께 산을 찾으셨는데, 아마도 제자들에게 좋은 기도 체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하얗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두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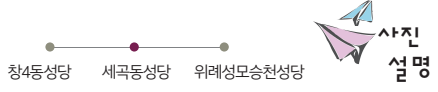
기쁨과 위안을 얻었던 모양입니다. “주님, 저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그냥 쭉—욱 지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베드로의 발언이 제자들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 분노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 같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기도 중에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믿음을 얻는 것이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받은 마음의 위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 빨리 사라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의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체험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물이 없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어쩌다 만나게 되는 것처럼, 특별한 기도 체험 역시 아쉽지만 가끔만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비정기적’이고 짧은 체험만으로도 삶의 온갖 무게를 이겨낼 힘을 우리는 꼭 얻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시편 23,4) 아멘.



세곡동성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곡로21길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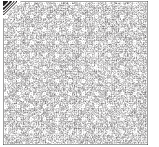


세곡동성당은 2017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주보는 예수성심이며 관할구역은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입니다. 현재 14개 구역 4623명의 신자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5월 부지 계약을 완료하여 2015년 3월 기공 미사를 봉헌하고 2017년 1월 교구장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주례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김명중 시문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



안현모 리디아 | 방송인



| 함께 오르는 산

최근 3박 4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다녀왔습니다. 촬영차 내려간 김에 조용히 혼자 글도 쓰고 휴식도 취할 겸 며칠 더 머무르다 왔지요. 내려갈 때는 꽤 가벼운 마음으로 향했습니다.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에서 좋은 공기 마시며 건강을 충전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서울로 돌아올 때는 쫓기듯 걸음을 재촉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텅 빈 시외버스에 마스크로 무장을 하고 앉아 시계만 보며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새 온 나라의 분위기가 심각하게 바뀌어, 힐링은커녕 오로지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상치 못한 마무리였죠.

인생을 산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아름답고 단정하게만 보였던 산이, 막상 입산해 보면 갑자기 돌부리가 툭 튀어나와 발을 찌르기도 하고, 움푹 파인 구덩이가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기도 하듯, 인생도 실제로 살아보기 전까진 앞날을 속속들이 알거나 미리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치 제가 강원도 여행을 처음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마쳤듯, 인생의 여러 산들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산하게 될지는 감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에 올라 힘차게 ‘야호’하고 외치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내려올 수도 있고, 다시는 발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험레벌떡 도망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것이 쉬운 등산이든 힘든 등산이든, 우리가 그 산을 오를 때는 늘 하느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특별히 더 어렵고, 낯설고, 위험해 보이는 산행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그분은 분명 우리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난관이 펼쳐질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감히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의 시야는 그저 한정적일 뿐이지만, 그

럴수록 주머니 속 신앙이란 나침반을 꼭 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등반은 나 하나가 아닌, 너무나도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같은 산과 분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각자 따로 따로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헤쳐나가라는 뜻은 아닐지 헤아려봅니다. 자주 단절돼 있고 갈라져 있던 우리들에게, 이번만큼은 잠시 같은 비를 맞고 같은 흙을 밟으며, 서로가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넘어진 형제자매에겐 손을 뻗어 주고, 물에 빠진 형제자매에겐 나뭇가지를 내어주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흑여 빗줄기가 너무 사나워서 때로는 뿔뿔이 저마다의 동굴 속에 몸을 피해야 할지라도, 결국엔 모자란 물리적 접촉의 자리를 정서적 교감이 대신하고, 무엇보다, 부족했던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커다란 산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하느님. 그분의 발뒤꿈치만 보며 길을 잃지 말고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자세히 보면, 발밑에 돌아나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어느덧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를 이끄는
성경구절

두려워
마라

내가 나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서 41:13

우순기 그라시아 | 장위동성당

최현묵(마태오)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최현묵(마태오, 40) 신부님께서 지난 2월 25일(화)에 선종하셨습니다. 최현묵 신부님은 1981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2011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상계동성당, 자양2동성당, 군중, 정릉4동성당에서 사목하셨습니다. 2월 27일(목)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묘원 한식 성묘 안내

1) 용인추모공원 한식 성묘 안내 / 미사: 4월5일(일)
 성묘 승차권을 묘지관리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전화예약(02)727-2225) 후 송금하셔야 자리배정이 가능합니다. 관리비가 미납된 분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장기 미납 시에는 무연고 처리됩니다. 식사 및 성묘 개별준비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묘원 경당(김수환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차량 도착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요망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승차권 예매: 3월2일(월)~31일(화)
 선착순 자리배정(1매 1만2천원-조기마감 가능)
계좌번호: 우리은행 454-003267-13-159 (재)천주교서울대교구
문의: 02)727-2225 묘지관리과, 031)334-0807 용인묘원

2) 천주교 비봉추모관 한식 성묘 안내
미사: 4월5일(일)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명례방 / 식사 및 성묘 개별준비
승차권 예매: 명동 출발(신청: 02)727-2225) / 도림동 출발(신청: 02)833-9439)
미사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추후 알림 예정)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과 미사 봉헌에 대한 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 결정 2019.10.17).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29년 3월12일 강도영 마르코 신부(66세)
- 1944년 3월9일 이보환 요셉 신부(51세)
- 1981년 3월15일 이용유 베네딕토 신부(36세)
- 1983년 3월14일 박성중 프란치스코 신부(60세)
- 2013년 3월12일 이계중 세례자요한 신부(91세)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기도문
 - 천주교서울대교구장 인준 2020.2.26 -